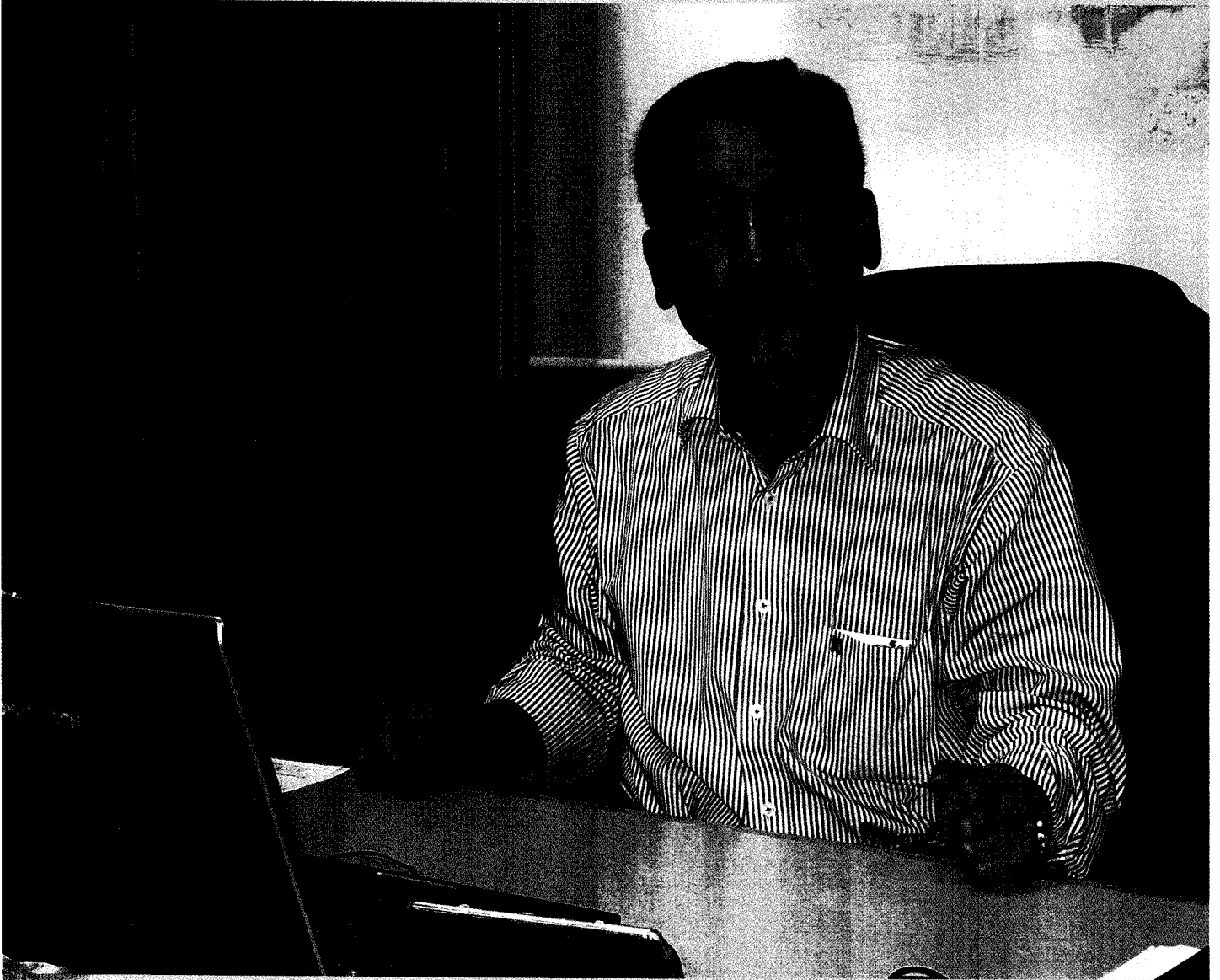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등

# √ 회원사 지원 프로그램 강화

대한설비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 김재홍 회장



제8대 시·도회장이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전국 시·도회는 시·도회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본지는 향후 3년간 시·도회를 이끌어갈 전국 시·도회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들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호에는 회원사의 적극적인 지지로 3차에 걸쳐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재홍 울산·경남도회 회장을 만나보았다.[편집자주]

## 제8대 회장으로 재임된 소감과 각오

먼저 부족한 저를 울산·경남도회 제6·7대 회장에 이어 제8대 회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한없는 영광이며, 우리지역 설비건설업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회원 여러분들의 뜻이기에 더욱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지역 설비건설업계는 공공물량 축소와 민간 건설경기의 둔화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소 건설업체 간 양극화와 지역 간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으며, 대내외 상황을 볼 때 앞으로도 극심한 수주물량난과 자금난으로 힘든 한해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건설환경에 대비해서 우리는 내실을 다지고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발 빠른 대응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협회와 회원사 간에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회원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울산·경남도회 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회원사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지역 설비공사의 원·하도급 수주물량 확대와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수주여건을 개선하고, 노사문제 해결지원, 지역별협의회 활성화와 아울러 회원 친목과 단합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협회의 존립이유가 회원의 권익증진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회원 여러분의 요구를 소중히 받아들이는 자세로 회원 여러분의 고충을 함께 짚어지고 나가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중점 추진 사업

### 첫째, 울산·경남지역 회원사의 설비건설공사 수주물량 확대 추진

먼저 울산·경남의 대규모 건설공사 하도급 세일즈 추진 및 지역 회원사 홍보를 통해 회원사의 대

형공사 하도급시공 참여율이 점차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3군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울산·경남도회 회원사의 우수 협력업체 추천과 협력업체 등록지원 및 민간발주처에 대한 회원사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기계설비공사에 적용되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에 대한 대외 홍보 활동을 전문건설협회 등 타 건설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둘째,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수주여건 개선

울산·경남도회는 회원사 상호간에 제삼 깎기식 덤핑수주를 방지하고, “공사비 제값받고 성실 시공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수주환경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공사비를 지나치게 낮게 발주하는 사례를 개선토록 추진하고, 발주기관의 자의적 공사비 부당 삭감 관행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셋째, 회원사 순회간담회 및 지역별 협의회 활성화 추진

울산·경남은 광역지역이므로 회원사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산하 시·군별로 순회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업체현안을 나누면서 회원 간의 단합을 도모하는 장을 마련하고, 협회 사업추진 동향 및 각종 정보를 지역 회원들에게 알리는 물론, 회원사들의 지역별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문제점 해소에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울산·경남지역 설비건설업역 확대와 회원 친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친목협의체인 울산협의회, 경남중부협의회, 경남서부협의회 등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별 협의회 활성화에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 지역에 소개한 회원들과 함께 지역별 기관장 간담회 및 불우이웃돕기성금 전달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설비건설업의 위상을 한층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경남도회는 이밖의 모든 노력을 쏟아 지역 발주기관과 지역 회원사들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중개자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회원사와 건설노조의 노사문제 해결지  
원 및 회원 권익보호 추진**

울산·경남 지역은 건설노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므로 설비건설현장에서 회원사와 건설노조 사이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울산·경남도회는 이에 대한 분쟁 해결에 적극 앞장서서 노사 문제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회원사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업계의 정당성 및 애로사항 홍보, 건설노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상호 정보교류 및 노무 관리교육 등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및 건설정보 서  
비스 확대 추진**

울산·경남도회는 아직 업무가 미숙한 회원사 임직원들을 위해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와 회원사에게 중요 공지사항을 문자로 알리는 “건설정보 문자 전송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회원 봉사사업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입찰공고, 법령 및 제도, 발주계획 등 건설관련 각종 정보를 회원들에게 신속히 제공하도록 건설정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울산·경남지역 회원사에게  
당부 말씀**

존경하는 울산·경남도회 회원사 여러분!  
그동안 우리 설비건설 분야는 건축, 주택, 도로,

교량 등의 건설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취약한 분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설비건설업도 위상을 높이고 건설분야의 한 자리를 제대로 맡아 우리의 몫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업계 스스로 철저한 경영관리와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인 선택과 각고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공공공사의 감소,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축소, 경기위축에 따른 민간건설시장의 변화 등 겹친 악재에 시달리는 우리 건설업계의 가장 큰 과제는 ‘파이’를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품질향상과 기술수준을 높이는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아무리 시장 환경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회원 상호간 화합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지금의 어려움을 넘기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가올 기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 간의 긴밀한 정보공유와 서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회원 화합을 해치고 경영을 악화시키는 덤핑수주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울산·경남도회 회원사 여러분!

우리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오히려 한층 성숙된 성장을 보여준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건설업 위기극복 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공사물량 확보와 수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면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고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회원사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업계와 협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고견을 주시고 격의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울산·경남도회 김재홍 회장은?**

- 1950년생
- 경남거제 해성고등학교 졸업
-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신한기공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현장근무
- AMERICAN TRANSOCEAN 현지근무
- 선경건설(주) 근무
- 現 (주)동부 대표이사
- 대한설비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 제4대, 제5대 부회장
- 대한설비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 제6대 회장
- 대한설비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 제7대 회장

- 現 대한설비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 제8대 회장
- 대통령 표창(2008 건설의날)
- 울산광역시 감사패
- 경상남도 교육감 감사패
- 울산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장 우수상
-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공로패
-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감사패
- 선경건설(주) 품질관리 우수업체 감사패
- SK건설(주) 무재해 달성기념 감사패